

SK, 하이닉스 인수설 근거없어...

시장에 떠돌고 있는 SK의 하이닉스 인수설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증권은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2010년 6월에 이어 최근 SK의 하이닉스 인수설이 제기됐다. 정보기술(IT) 경영 경험이 없고 기존 사업과 시너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거없는 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설립 예정인 SK애크비전은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SK는 2011년 1/4분기 영업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고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이 기업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저널 2011/03/28>